

# 경쟁력 있는 공학교육을 위한 대학, 기업, 정부에의 제안



김 석 기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우리의 기업이 세계시장을 향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몇 개의 대기업 집단과 일부 벤처기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 사업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며, 인력 중에서도 기술인력의 확보는 기업의 핵심과제가 된다. 세계적인 우수기업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대학의 우수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직·간접으로 교육내용이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는 대학이 근본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교육하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인력을 기업에서 재교육 내지 훈련하는 것은 많은 비용뿐 만 아니라, 기회 손실, 교육에 필요한 시간 낭비, 기술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제품의 경쟁력 상실 등을 야기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투자에 대한 회수를 고려한 교육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 똥판지 같이 투자회수를 말하는가 하고 의아해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모든 인간

활동이 '잘 살아 보자'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생각을 아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불어 공학은 실용학문이 아닌가?

한국의 많은 기업은 대학에서 갓 졸업한 인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교육을 하고 있다. 이것도 OJT형식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몇 개월 혹은 반년 가까이 시행하는 회사가 많이 있다. 일부 대학원 졸업자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 실무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을 갖는 인력이 되는 것이다. 대학은 직업교육이 아니라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의 재교육은 필요악이라고 혹자는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자마자 바로 현장에 투입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인력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대학의 연구에 대한 업은 이번 논제의 밖이라고 본다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교육 서비스 정신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학이 이런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설비가 필요하고 가르칠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별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할 것인데, 이것은 기업이 하는 일종의 마케팅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를 알아 내는 방법은 대학이 기업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알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학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람직하기는 이 두 단체가 서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일 것이다. 대학도 기업이 요구하는 재능을 갖춘 인력 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는 것이며, 기업이나 대학이 함께 살아 남고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대학의 교육기능을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생산에 부응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투자, 특히 교육설비의 투자가 절실하다. 학교와 기업은 어떤 인력이 요구되는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학과의 관계정립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이 참여 기업으로부터 일부 지원이 된다면,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좋고 기업의 이미지 상승에도 기여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학과 관계를 갖고 영향력을 만들어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대관계는 강제로 만들어 지면 형식적으로 될 것이 확실하므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예로,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상에 이익과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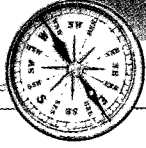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대학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들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익숙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 기업의 요구에 언짢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학에도 기업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또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는 학교에 정부의 지원이나, 연구비를 일정 분 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학이 교육에 제 몫을 잘 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것도 차제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기 보다는, 사람 사귀고 학연과 지연을 만드는 장소로 되고 있으며, 각종 고시를 위한 준비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일전에 국내 최고 대학의 공대 대학원 지원이 미달했다고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본적이 있다. 이 대학의 공대 학부 생들의 50%이상이 각종 고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좋은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적, 내지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안들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제안을 하며 간단히 그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글을 맺으려 한다.

#### 1) 공과대학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투자 확대:

국가의 전반적 경쟁력의 제고는 전체적인 사회 기반 확립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선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무역전쟁에서 이기는 초석이 되고 그 경쟁력은 기술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 기업이 대학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기업이 대학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기업의 대학에 대한 투자 또는 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세제혜택, 병역특례 등)를 만들거나 법률 제정.

3) 개인이 학교재정에 기여하는 방법 연구:

개인도 학교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예로, 기여입학제, 개인 세제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화해야 한다.

4) 대학의 변화촉구:

맞춤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에 금천적, 혹은 제도적 혜택을 주고, 교육과 연구의 성과에 따라 교원의 봉급을 차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시행하는 대학에 적극적인 혜택을 주도록 한다. 교수들 간에 더 나아가 대학 간에 진정한 경쟁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학교에 봉직하는 분들의 적극적 사과의 개선이 요구 되는 상황이다.